

“사회복지인들에게 격려를”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무주군 사회복지대회 성료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무주군 사회복지대회가 5일 무주를 반딧불축제 주무대(등나무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영재)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 이해를 키우고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주관한 것으로, 이경진 부군수와 유송열 의장, 황의탁 도의원,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연숙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시설 생활자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하은의 집 이상훈 생활재활 교사가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무주9987노인복지센터 박영숙 요양팀장이 무주군의회 의장상을,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이재덕 드림스타트 팀장과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금에 다문화마을화당 교사는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이 주는 상을 받았다.

또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 김성주 좋은 이웃들 담당이 무주진안장수 사회복지사협회장상을,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홍은혜 통번역지원사 팀장과 무주청소년수련관 이충현 대리, 평화요양원 최원빈 작업치료사가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장상을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무주군사회복지대회가 5일 무주를 반딧불축제 주무대에서 개최됐다.

수상했다. 참석자들은 “하는 일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자부심도 있고 보람도 크다”라며 “서로 다독이며 일으며 주는 시간을 가진 만큼 힘을 내서 이웃과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부 행사로 진행된 반딧불축제와 함께 하는 사회복지인 힐링타임(축제장 및 영화관람)의 시간은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무주군사회복지대회

행사의 의미를 더하며 만족도를 높였다.

이경진 부군수는 “세상이 이만큼 베풀어 가는 건 고달파도 이 길을 계속 해서 가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시간이 여러분께 위안이 되고 동기가 되길 바라고 사회복지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이끌어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읍, 이웃돕기 ‘훈훈한 명절’

DC마트 선봉기 20대 후원·전북은행 행복꾸러미 45세트 등

진안군 진안읍행정복지센터(읍장 박홍영)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훈훈한 명절을 보내려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진안DC마트(대표 강규남)는 명절을 앞두고 후라이팬, 비누, 치약, 햄(88만원 상당) 10세트 등을 기탁하였다. 강 대표는 지난 여름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선봉기 20대를 후원한 바 있다.

또한 전북은행에서 행복꾸러미(175만원 상당) 45세트, 진안지역 자활센터에서 백미 10포(10kg),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수용품 9세트 및 생계비 160만원(가구당 20만원, 8가구), 진안군경찰발전위원회에

서 생계비 20만원(가구당 10만원, 2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290만원(가구당 10만원, 29가구) 등을 후원하여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전달된 후원물품들은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청장년 독거가구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홍영 읍장은 “명절일수록 더욱 외로워지기 쉬운데 소외된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 금계곡마을 진입로, 추석 전 준공

진안군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귀면 금계곡마을 진입로 공사인 거수선 도로화·포장공사를 추석 전 완료코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학·포장 공사는 기존 3.0m 정도의 도로 폭인 소로를 마을 입구에서부터 마을회관까지 780m 구간에 대해 폭 5m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번 주 중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군은 관내에서 진행 중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와 차선도색 작업 역시 조기에 완료해 명절에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대금도 즉시 지급해 명절에 체불임금이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그간 도로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 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국제교류 펼친다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우호교류 협력 양해각서 체결

장수군이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우호교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농업, 문화, 경제, 관광,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펼친다.

장수군은 5일 회의실에서 장영수 군수와 필리핀 코르도바시 Mary Therese P. Sitoy Cho 시장, Mary Therese Sitoy Cho 부시장 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코르도바시 우호교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필리핀 코르도바시는 필리핀 비사얀제도 막탄섬에 위치한 인구 8만명의 해안도시로, 해양보호구역과 다이빙 명소가 있어 관광과 어업이 발전한 곳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장수군과 코르도

바시는 상호 간 농업과 문화, 경제, 관광,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및 정책 교류 등을 펼쳐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최근 우리 군의 큰 문제로 대두된 농번기 일손 부족의 대안으로 제기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농촌인력의 원활한 공급 등에 대한 협약으로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에 적극 앞장 설 예정이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군과 필리핀 코르도바시 간의 우호교류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두 도시의 우의를 공고히 하고 상호 신뢰 속에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태풍 예보... 장수 한우량사과랑 축제 취소

장수군은 6~8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던 ‘제13회 장수 한우량 사과랑 축제’를 전격 취소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5일 긴급회의를 열고 태풍 링링의 북상 예보에 따른 축제 진행 여부를 논의하고 군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제13회 장수 한우량 사과랑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13회 장수 한우량 사과랑 축제는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는 장수 한우량 사과랑 축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예

년과는 다른 색다른 모습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다.

정길수 축제추진위원장은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해 준비한 축제지만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예보로 관내 농가들의 피해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축제를 강행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돼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며 “내년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더 풍성한 축제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나누는 사회복지 실천가 되길”

진안군, 제13회 사회복지한마음대회 개최

진안군은 5일 제13회 진안군사회복지한마음대회를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 관내 사회·기관단체장, 저소득층 주민과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예체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열린 행사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인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행사다. 식전행사로 국악공연을 시작으로

할지원을 금을 전달했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이용방법 홍보와 좋은이웃들 소외계층 발굴의 날 캠페인도 전개하였으며,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 봉사자들의 자원봉사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 되었다.

15년 전 출범한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는 늘 처음처럼 우리 주변의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군민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끊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한마음대회를 통해 사랑, 나눔, 봉사를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송상모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한마음대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그 분들을 돌보고 사랑을”고 당부했다.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

해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어 진안이 더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외 받는 사람 없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진안을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표창 수상자는 △(진안군수상) 김수진 진안읍사무소 주무관, △(진안군의장상) 이동영 노인복지관 팀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 강성환 성수면사회복지협의회장,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상) 김서원 진안군보건소 방문보건 팀원,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상) 강현정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심부름센터 팀장,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장상) 홍미령 진안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등 6명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